

위성락, 美에 ‘패키지 협상’ 제의… 정상회담 시기는 ‘아직’

〈국가안보실장〉

韓美 상호관세 협의 내용

“관세협상 꽤 진행돼, 의제 식별”
양국 ‘조속한 정상회담’에 공감
李 대통령-트럼프, 만나지 않고
실무단 논의 ‘바탕 업’ 방식 전망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호관세 협상을 내달 1일까지 지속하기로 합의했지만, 여기에 안보 의제가 추가되면서 빠른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관세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만나 타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방위비 등 안보 분야에서 양 정상만 나서 논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에서 돌아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한 내용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 만나 통상·투자·구매·안보 등을 패키지로 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의했다고 한다. 일단 위 실장은 관세 협상에 대해 “꽤 진행돼 왔고, 의제가 식별돼 있다”고 말했다. 앞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원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진행된 셈이다.

또 양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갖자는 데 공감했지만, 시기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이 최적의 관세 협상 결과를 끌어낼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정상회담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의 관건은 아니다”며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의 모멘텀을 만들 것이라는 전망과는 다른 방향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관세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관세 협상은 통상교섭본부장 등 실무 단위에서 논의를 시작해 위로 올라가는 ‘바탕 업’ 방식이 될 전망

이다.

하지만 미국은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을 연계하려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관세만의 이슈가 한미 간 의제는 아니고, 그 외의 정세·안보 등 여러 측면이 있어서 정상회담을 할 동력은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패키지’로 묶인 안보 협상은 관세 협상과 다른 모양새로 진전될 전망이다. 현재 안보 협상에서는 한미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 실장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까지 포함된 국방비에 대한 논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도 있었고, 인도-태평양 지역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엔 국방비 인상 논의가 있었음을 전했다. 아울러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도 어느 정도 논의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

하지만 위 실장이 언급한 ‘국방비’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뜻한 게 아니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내각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지금보다 10

배 가량 더 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SMA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국방비 전체에 대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는 안보 협의를 할 때 대체로 나오는 주제라 그 얘기는 있었다”며 “일단 SMA는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1조5000억 원대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MA 외에도 우리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따로 있고, 국방비 전체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늘러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기여를 많이 하고, 그 기여가 늘어날 소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즉 현재 주한미국의 역할 변화, SMA와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권 환수 등이 뭉뚱그린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패키지로 관세·안보 협상이 이뤄지지만, 속도가 다른 셈이다. 또 오히려 안보 이슈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톱 다운’ 방식으로 직접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대통령실 ‘RE100 산단 특별법’ 만든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 균형발전
대통령 핵심 국정철학과 맞닿아”

대통령실은 10일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하겠다는 것)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가칭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RE100 산단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RE100 산단은 기업의 RE100 수요를 100% 충족시켜주면서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100%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면서 “정책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RE100 산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에서 RE100 산단 추진 방안을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정한 것은 이 과제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통령의 핵심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과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이 다르면서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크

다. 한쪽에서는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모자라고 한쪽에서는 남아돌아 버려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국가적 비효율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E100 산단의 기본 콘셉트”라며 “RE100 산업을 통해서 에너지 수급 구조와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자는 것”이라고 RE100 산단 조성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RE100 산단이 쉬운 일이 아니고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산업부가 중심이 돼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비트코인 ‘11만2000달러’ 최고가 경신

美 엔비디아 등 기술주 상승 동조화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1BTC당 11만2000달러를 넘겼다. 미국 내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기술주의 가격상승과 동조화 흐름이다.

10일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3시께 전일보다 약 2.27% 오른 1BTC당 11만1207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장중 한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11만2055달러를 기록해, 지난 5월 22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11만1900달러를 경신했다.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 가격도 강세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ETH)은 전일 대비 6.24% 상승

했고, 리플(XRP)은 3.58%, 바이낸스(BN)는 1.31% 올랐다. 솔라나(SOL)도 2.79% 상승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가격이 일제히 상승한 것은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AI 대표주인 엔비디아를 비롯해 기술주 전반이 강세를 보여서다. 엔비디아는 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49% 오른 4만4458.30에 장을 마감해 시가총액이 4조달러대에 진입했다. 엔비디아는 오는 9월 중국 전용 AI칩을 출시할 예정이며,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중국 방문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로 안정적인 코너링

>> 1면 ‘고성능 전동화…’서 계속

실내 간접 조명을 통해 최적 변속 타임을 알려주는 N 앰비언트 슈프트라이트 기능이 함께 적용돼 물입감 높은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아이오닉 6N에 적용된 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는 사운드를 구현하는 능동 음향 제어기(ADP, Acoustic Design Processor)의 성능 강화와 실내 스피커별 채널 할당으로 입체적인 음향 효과를 구현했다. 또 신규 사운드 ‘라이트스피드(Lightspeed)’, N 그린 부스트 사용 효과음 등 다양한 신규 고성능 음향 효과를 제공한다.

또 차세대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를 적

용해 경쾌하고 안정적인 코너링 성능과 뛰어난 한계주행 능력 등 일상을 넘나드는 고성능 주행감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한편 현대 N은 10일 영국 최대 자동차 축제인 ‘2025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서 아이오닉 6N을 전 세계에 처음 공개했다. 지난 2023년 이곳에서 아이오닉 5N을 공개한 데 이어 아이오닉 6N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현대차 CEO 호세 무뇨스 사장은 “현대 N은 아이오닉 6N을 통해 고성능 주행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일상과 트랙 주행에서 고성능 전동화 파워트레인에 기반한 짜릿한 주행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잠재성장률 3% 복귀’ 위한 전담반 가동

기재부·한은·KDI 연합 구성
노동공급 확대 등 정책방안 제시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의 전담반(TF)을 가동한다. 이는 2%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대로 복귀하기 위한 TF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TF는 우선 주요 국정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이를 이달 하순 또는 다음 달 발표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TF에는 특히 한은이 참여하면서 한은이 그간 제시해온 대응책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녹아들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산업생산성 혁신 ▲청년·여성·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 ▲교육·직업훈련체계 개선 ▲투자활성화 ▲규제혁신 등이다.

KDI의 경우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노동공급 확대 ▲산업구조 전환 ▲혁신역량 강화 ▲중요소생산성 향상 ▲규제개혁과 기업환경개선 등을 제시해 왔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것으로 예

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TF에서 도출된 정책과제들은 각 부처가 사업화·예산화하고, 세제지원 방안까지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세제 지원과 함께 구조개혁 과제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과제들은 단기 경기대응을 넘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AI·첨단산업 육성 등 중장기 산업혁신 전략과 구조개혁 방안 등을 담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